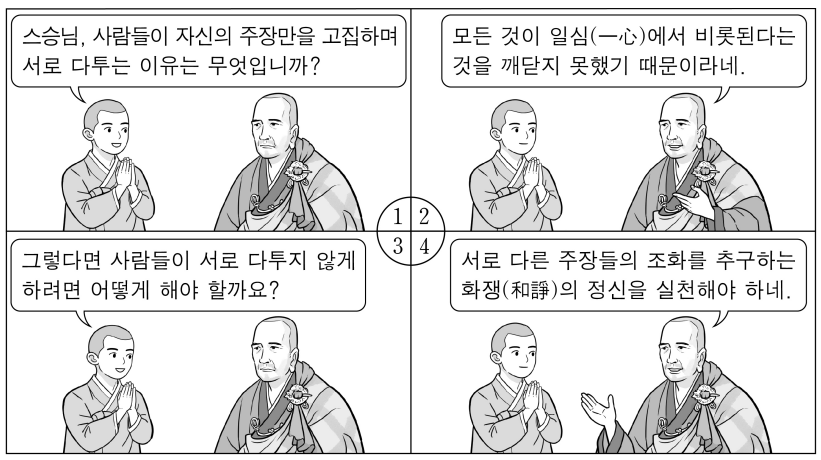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					제 〔 〕선택

1.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올곧은 기개[浩然之氣]를 지닌 대장부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
② 원융회통(圓融會通)의 논리로 갈등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③ 악한 본성을 선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禮)를 실천해야 한다.
④ 만물의 근원인 도(道)의 원리에 따라 무위(無爲)의 삶을 살아야 한다.
⑤ 인(仁)을 이루기 위해 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야[克己復禮] 한다.

2. 중세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갑: 나는 플라톤의 책을 읽고 비물질적인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 진리란 신이 존재한다는 것, 신은 무한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신은 어떤 변화도 겪지 않고 항상 자신과 동일한 자로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 을: 움직이는 모든 것은 다른 것에 의해 움직여져야 하고, 이것 역시 또 다른 것에 의해 움직여져야 한다. 그런데 운동의 원인은 무한히 소급해 갈 수 없다. 따라서 자신은 움직이지 않고 다른 것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자, 즉 신에 도달한다.

① 갑: 죄악의 원인은 신이 부여한 자유 의지의 남용에 있지 않다.
② 갑: 신에 대한 사랑을 통하지 않고 인간 그 자체를 사랑해야 한다.
③ 을: 모든 덕은 신으로부터 주입되어 초자연적인 행복을 향한다.
④ 을: 모든 피조물은 이성적이든 비이성적이든 영원법에 종속된다.
⑤ 갑과 을: 신앙을 통해 현세에서도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

3.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성인(聖人)은 무위(無爲)의 태도로 세상일을 처리하고 말 없는 가르침을 실천한다. 만사를 성취하게 하지만 자랑하지 않고 만물을 자라게 하지만 내 것으로 삼지 않는다.
> 을: 진인(眞人)은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서도 두려워 떨지 않으며, 깊은 물속에 들어가서도 젖지 않는다. 지혜가 도(道)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이와 같다.

① 갑: 도는 어떤 일을 도모하지 않지만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
② 갑: 도는 만물 생성의 근본 원리로 만물을 소유하고 주재한다.
③ 을: 도는 실재하지 않기 때문에 형체도 없고 터득될 수도 없다.
④ 을: 도는 감각을 통해 축적된 지식이 충만할 때 인식될 수 있다.
⑤ 갑과 을: 도는 무지와 무욕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때 획득된다.

4.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갑: 만물로 이루어진 하나의 우주가 있고, 만물을 관통하는 하나의 신이 있고, 하나의 법이 있고, 모든 지적 존재들에게 공통된 하나의 이성이 있고, 하나의 진리가 있다.
> 을: 쾌락을 목적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방탕한 자의 쾌락이 아니다. 내가 뜻하는 쾌락은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혼란이 없는 것이다.

① 갑: 우주에서의 각 사건들마다 목적이 깃들어 있는 것은 아니다.
② 갑: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기에 신의 속성을 공유하지 않는다.
③ 을: 용기, 절제, 정의와 같은 덕들 각각은 비도구적 가치를 지닌다.
④ 을: 모든 쾌락은 선이기에 각각의 쾌락은 항상 선택될 만한 것이다.
⑤ 갑과 을: 자연 본성에 대한 탐구 없이 참된 행복은 실현될 수 없다.

5.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신을 믿는 자는 절망에 대해서 언제나 확실한 해독제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신에게는 모든 순간에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주체적 결단을 해야 한다.
> 을: 인간의 본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본성을 구상하는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은 실존한 뒤에 스스로가 구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스스로 만드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① 갑: 인간의 주체성은 실존적 상황에서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다.
② 갑: 인간이 윤리적 삶을 선택하면 더 이상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
③ 을: 인간은 자유 그 자체를 스스로 선택하는 유일한 존재이다.
④ 을: 인간은 미리 정해진 보편적 원리에 따라 삶을 선택해야 한다.
⑤ 갑과 을: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기에 불안의 감정을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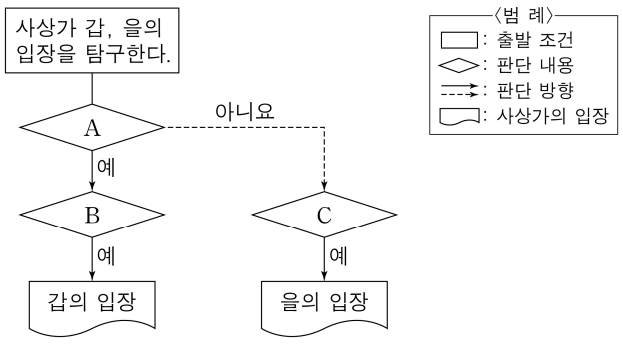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6. 다음 가상 편지를 쓴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에게
>
> 지난번 편지에서 자네가 인간의 영명함을 표현할 때 어떤 용어가 더 나은지를 물었기에 몇 마디 적어 보내네. 요즘 사람들이 심(心)과 성(性), 두 글자 때문에 싸우는 것이 더 심해지고 있네. 누구는 심이 크고 성이 작다 하고, 누구는 성이 크고 심이 작다 하네. 그러나 꼭 한 글자를 빌려 인간의 대체(大體)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려고 한다면, 심은 괜찮으나 성은 안 되네. 성이라는 글자는 사슴의 성, 풀의 성 등과 같이 읽어야 하며, 본래 기호(嗜好)의 뜻으로 이름을 수립한 것이어서 고원하거나 광대한 설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일세. 사람들이 성이라는 글자를 높여 하늘처럼 큰 물건으로 받들고, 종잡을 수 없이 과장도 하는데, 여기에 무슨 이로움이 있겠는가? 자네도 각별히 유의하게.

① 하늘은 인간만 지닌 본성이 선을 지극히 좋아하도록 명하였다.
② 인간은 선한 기호만이 아니라 악한 기호도 지닌 채로 태어난다.
③ 마음속의 도덕적 갈등은 영지의 기호만으로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
④ 형구의 기호는 기질이 맑아지면 비로소 올바른 삶을 욕구할 수 있다.
⑤ 인간이 악을 행하기 쉽게 된 것은 오직 자주지권에 그 까닭이 있다.

7.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나 많은 좋은 것들은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사유되지는 않고, 반면에 아름다움 자체와 같은 이데아는 사유는 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을: 신은 실체로서 모든 것들의 작용 원인이다. 그리고 오직 신만이 자유 원인이다. 오직 신만이 자신의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만 존재하고 자신의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만 행위하기 때문이다.
(나)	

<보 기>

ㄱ. A: 현실 삶을 이끄는 궁극적 실천 원리가 현실 밖에 있는가?
ㄴ. B: 정의 자체와 정의로운 것들은 상호 독립적 관계인가?
ㄷ. C: 정념의 발생 원인은 자연법칙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가?
ㄹ. C: 자기 안에 있고 자신에 의해 파악되는 것은 하나뿐인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8.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갑: 마음을 벗어나 사물의 이치[理]를 구하므로, 어두워 통하지 못하는 곳이 있게 된다. 마음을 벗어나면 인(仁)도 의(義)도 구할 수 없는데, 이치라고 구할 수 있겠는가? 마음을 벗어나 이치를 구하니, 앎과 행위가 둘로 나뉜 것이다.
> 을: 마음은 성(性)과 정(情)을 통솔[統]하는 것으로, 사단(四端)은 정이고 사덕(四德)은 성이다. 정으로 드러남으로 인하여 성의 본연함[本然]을 볼 수 있으니, 마치 물건이 안에 있으면 단서가 바깥으로 드러남과 같은 것이다.

① 갑: 지행(知行)은 선후의 구별이 있을 뿐이지 본래 하나이다.
② 갑: 양지(良知)는 호오(好惡)와 무관하게 선과 악을 판단한다.
③ 을: 거경(居敬)은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해 인을 형성하는 것이다.
④ 을: 존양(存養)은 사욕이 깃든 본연의 성을 바로잡는 수양법이다.
⑤ 갑과 을: 격물(格物)은 마음의 도덕 법칙을 깨닫기 위한 공부이다.

9.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갑: 지금 학문하는 사람으로서 서양이 불러올 재앙[禍]을 알고 있다면 선한 편의 사람이다. 비록 서양 사람의 말에 천 가지 만 가지 단서가 있어도, 이는 아버지도 무시하고 임금도 무시하는[無父無君] 사태의 주된 뿌리가 될 뿐이다.
> 을: 사람이 곧 한울이니, 사람 섬기기를 한울 섬기듯이 하라[事人如天]. 만물도 시천주(侍天主)가 아님이 없다. 날짐승 삼천도 각각 종류가 있고, 털벌레 삼천도 각각 목숨이 있으니, 만물을 공경하면[敬物] 덕이 만방에 미치리라.

① 갑: 민족정신의 고취를 위해 유불도(儒佛道)를 통합해야 한다.
② 갑: 서구 문물의 점진적 수용으로 정학(正學)을 보호해야 한다.
③ 을: 개벽을 통해 후천(後天)의 세상을 현세에서 이루어야 한다.
④ 을: 인간만이 한울을 모시고 있는 존귀한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⑤ 갑과 을: 백성을 평안하게 하려면 신분 제도를 공고히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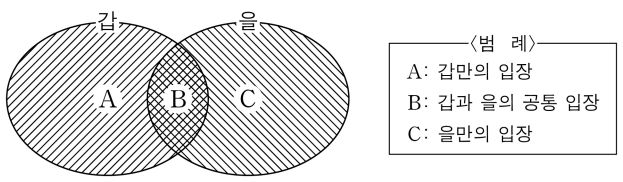
10.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의무는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 말미암은 행위의 필연성이다. 내가 의도한 행위의 결과인 대상에 대해 나는 경향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결코 존경을 가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대상은 의지의 결과일 뿐이지 의지의 활동은 아니기 때문이다.

① 가언 명령은 행위자에게 특정한 목적을 의욕하도록 강요한다.
② 도덕 법칙 아래에 있는 의지가 자유 의지와 동일할 수는 없다.
③ 준칙의 보편화 검사가 단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질 수는 없다.
④ 자율의 원리에 구속되어야 하는 존재에게 의무는 성립할 수 없다.
⑤ 선의지는 유일한 선은 아니지만 다른 모든 선을 위한 조건이어야 한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1. (가)의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 선왕(先王)들은 남의 고통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 남의 고통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정치를 하였다. 이런 정치를 한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손바닥 위에서 움직이는 것같이 쉬울 것이다. 을 : 선왕들은 사람들의 타고난 욕망으로 인한 다툼과 혼란을 싫어하였기에 예의(禮義)를 제정해 분별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하게 하였다.
(나)	

<보 기>

ㄱ. A : 도덕 성립의 근거는 선천적으로 지닌 도덕적 마음이다.
ㄴ. A : 군주는 인(仁)을 덕목으로 삼아 백성을 통치해야 한다.
ㄷ. B : 군자(君子)와 소인(小人)은 같은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ㄹ. C : 군주는 백성이 도덕적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다음은 한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을의 입장에서 갑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사단은 사덕(四德)에 근거하여 드러나는[發] 감정임을 간과한다.
② 사단은 칠정 중의 선한 감정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함을 간과한다.
③ 사단은 기가 발할 때 이의 운동[有爲]으로 인해 나타남을 간과한다.
④ 사단은 기의 특수성[局] 때문에 칠정을 포함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⑤ 사단은 발한 기가 맑아서 이가 온전히 나타나게 된 감정임을 간과한다.

13.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 인간은 그들 모두를 위압하는 공통의 권력이 부재한 곳에서는 전쟁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비참한 전쟁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평화를 추구하라'는 요지의 기본 자연법에 따라 만인이 만인과 상호 신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을 : 인간은 본래 타인의 침해와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생명, 자유, 자산에 대한 소유를 보존할 권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소유권의 향유가 매우 불확실하므로, 인간은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사회 계약을 맺는다.

<보 기>

ㄱ. 갑 : 자연 상태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정념에서 생겨나지 않는다.
ㄴ. 갑 : 주권 설립 목적에 반하는 주권자의 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
ㄷ. 을 : 신탁 이후 정부는 자연법 위반에 대한 처벌권을 독점한다.
ㄹ. 갑과 을 : 사회 계약 이전에도 개인은 소유권을 갖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중국 불교 사상가 갑, 한국 불교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 미혹한 마음을 일으켜 망념으로 전도하면 비록 밖에서 선지식의 가르침이 있더라도 아무 소용없다. 반야(般若)를 일으켜 관조한다면 한 찰나에 망념이 모두 사라지니 자성(自性)을 한 번 깨달으면 곧바로 부처에 이른다.
을 : 도에 들어가는 문은 많지만 돈오(頓悟)와 점수(漸修)의 두 문을 벗어나지 않는다. 돈오돈수는 많은 생애의 깨달음에 의지하여 수행해 오다가 현생에 단박에 깨달아 모든 것을 마친 것이지만, 사실 이 또한 먼저 깨닫고 뒤에 닦은 것이다.

① 갑 : 불성(佛性)을 형성하기 위해 본성을 반드시 직관해야 한다.
② 갑 : 끊임없이 수행에 정진하면 돈오 없이도 부처가 될 수 있다.
③ 을 : 중생이 지닌 본성은 돈오 이후에 청정한 본성으로 변화한다.
④ 을 : 정혜(定慧)의 수행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궁극적 경지가 있다.
⑤ 갑과 을 : 지혜보다 선정을 먼저 닦아야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다.

15.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정의도 다른 모든 덕도 결국 지혜이다. 정의로운 것이든 혹은 다른 아름답고 훌륭한 것이든, 이것들을 아는 자는 이것들 대신에 다른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이것들을 모르는 자는 이것들을 행할 능력이 없고, 만약에 행하려 시도한다고 해도 실패하게 될 것이다.

① 비겁의 악덕은 용감한 것에 대해 알지 못함으로부터 기인한다.
② 우리가 저지르는 악행 모두는 우리가 원해서 저지르는 것이다.
③ 덕에 대해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정의를 내릴 수 없다.
④ 영혼에 덕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행복한 것은 아니다.
⑤ 산파술의 도움 없이 지적 탐구만으로도 누구나 지혜를 갖출 수 있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6.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공화국은 자유를 위해 시민적 덕성, 즉 공공선에 봉사하겠다는 시민들의 각오와 능력에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 덕성을 지닌 시민은 시민적 우정을 중시하며, 시민적 덕성과 공화국에 대한 봉사가 사생활과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한다. 애국이란 공화국의 시민들이 공공선으로서의 자유를 함께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우정을 의미한다.

① 정치 참여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수단이다.
② 타인의 지배를 차단하는 법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③ 시민적 덕성은 모든 예속과 간섭에 반대하는 시민의 역량이다.
④ 공공선의 실현은 개인의 자유와 병존할 수 없는 정치적 목적이다.
⑤ 애국은 헌법에 구현된 보편적 정치 원리와 가치에 대한 충성이다.

17.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행복이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라면, 행복은 최고의 덕에 따라야 할 것이다. 최고의 덕은 영혼의 부분들 중 최고의 부분, 즉 지성이라 불리는 부분이 가지는 덕이다. 따라서 지성이 발휘하는 활동, 즉 관조적 활동이 최고의 행복이다.

① 실천적 지혜를 지니면서도 품성적 덕을 지니지 못한 사람이 있다.
② 인간이 욕구할 수 없는 대상은 인간이 파악해야 할 좋음이 아니다.
③ 한 사물에 속한 고유한 좋음은 그 사물의 목적에서 성립될 수 없다.
④ 최고의 선은 하나이기 때문에 추구할 만한 행복의 유형도 하나이다.
⑤ 욕구하는 성향을 억제할수록 그만큼 더 유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18.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 : 도덕적 구별은 대개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는 성질과 성격의 경향에서 발생하며, 이 이익에 대한 우리의 관심 때문에 우리는 그 성질이나 성격을 승인하거나 부인한다. 공감으로부터만 우리는 사회를 위한 포괄적인 관심을 갖는다.
> 을 : 높은 차원의 쾌락을 향유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때때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더 저급한 쾌락에 빠져서 고급 쾌락을 미루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높은 차원의 쾌락이 내재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① 갑 : 이성은 정념이 지향하는 목적의 불합리함을 밝힐 수는 없다.
② 갑 : 행위자의 품성이 아니라 행위만이 공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을 : 일반 이익 증진에 대한 동기가 없어도 공리를 증진할 수 있다.
④ 을 : 자신의 행복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항상 우선시해야 한다.
⑤ 갑과 을 : 도덕적 승인은 도덕 판단자에 따라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19.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시민들이 의사소통 행위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왔던 규범이나 견해, 즉 이러한 배경적 합의가 더 이상 정당한 정치 질서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담론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러한 담론의 결과, 문제시되었던 기존 질서의 타당성은 그대로 인정되거나 거부됩니다. 담론의 참여자들은 논증적 대화를 통해 처음 가졌던 자신들의 주관적 견해를 극복합니다. 이처럼 논쟁적 담론은 단순한 의사 전달이나 견해의 교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 주관성의 합치를 달성하기 위해 심층적 논증을 하는 탐구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① 민주주의는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위한 집단들 간의 경쟁이다.
② 국회와 같은 입법 기관이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의 중심이 된다.
③ 민주주의는 공론장에서 수행되는 시민들의 심의 과정을 중시한다.
④ 법 규범의 정당성은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⑤ 공적 결정은 시민의 기존 선호를 변경 없이 결집하여 이루어진다.

20.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갑 : 정부가 몇 개의 병에 지폐를 채워 폐광에 묻고, 민간 기업에 맡겨서 지폐를 다시 파내게 한다면 실업은 줄어들 것이다. 이처럼 정부는 다양한 정책과 투자 계획을 통해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 을 : 시장은 대표적인 자생적 질서이다. 정부가 시장 질서를 부정하면 개인의 자유는 위협받고 인간은 노예의 길로 끌려가게 된다. 정부의 임무는 일반적 상황에 적용되는 규칙을 확립하는 일로 제한되어야 한다.

① 갑 : 정부는 완전 고용 달성을 위해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② 갑 : 공공 부문 투자와 경제적 자율성 보장은 상충할 수밖에 없다.
③ 을 : 정부 주도의 계획에 따라 국가 경제 전체를 운영해야 한다.
④ 을 : 시장 경쟁이 활성화될수록 의식적인 사회적 통제는 더 필요하다.
⑤ 갑과 을 : 시장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